

한국관광 잠재 시장은 ‘영국’ K-팝·DMZ에 매료된 英 젊은이

관광공사 보고서
방한 의향 노년층보다 높아
방문 비율 日 1/3 수준 그쳐
“영국 젊은층에 홍보 강화해야”



지난 3일 마산항을 통해 영국선사 크루즈선 칼레도니아 스카이(Caledonia Sky)호로 입항한 영국, 호주 국적 외국인 관광객들이 합천 해인사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한국관광공사가 유럽으로의 다변화 시장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잠재력 높은 시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인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낮지만 젊은층은 첨단 기술과 K-팝 등 덕분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중국 관광객 급감 후 관광객 다변화를 위해 영국 관광시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영국 현지 여행업자·소비자 인터뷰, 현지 소비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국내 영국인 관광객 전문 여행업자 및 주한 영국인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예상외로 한국이 관광목적지로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우선 방한 비율은 일본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관광자원의 인지도 및 매력도가 일본보다 약하면서 비용 측면에서는 비슷하게 인식돼 방문 요인이 약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년층에서는 뚜렷한 이미지 때문이라기보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여서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북한 이슈에 대한 불안감도 큰 편이었다.

그러나 젊은층에서는 첨단 기술, K-팝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향후 방한 의향도 59%로 노년층(53%)에 비해 높았다.

영국 현지 여행업계는 한국에 비무장지대(DMZ), 산, 사찰, 첨단 기술 등 영국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재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는 독특한 매력의 목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한국 체류 영국인들은 한국의 역동적이고 안전한 나이트라이프가 젊은층에게 크게 매력적이라고 봤다.

영국 OB여행사 관계자는 “한국에 삼성, 엘지 통신 쪽과 전자기기, IT기술도

발달돼 있고, 이 쪽을 특화시킬수록 젊은층들은 확실히 방한 의향이 높아질 것 같아요”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공사는 영국 외에도 호주와 인도시장을도 조사했다. 호주 역시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일본 등에 비해 낮았으나 젊은층에서는 선호도가 높았다.

인도는 한국 관광시장이 가족여행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크지만, 인도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공사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국 시장과 유럽시장 대상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2017~2018 한영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특별캠페인을 추진, 방한 관광 홍보를 강화한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서울시, 여름철에도 미세먼지 상시 대응

2018 여름철 종합대책
쪽방민 등 폭염취약계층 보호 강화
폭우대비 대중교통 특별수송책 마련

서울시가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식중독과 같은 안전 위협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여름철 종합대책을 내놴. 올해에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기질 정책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여름철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은 크게 폭염·수방·안전·보건 4개 분야로 나뉜다. 폭염 대책으로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6명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는 쪽방민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별도의 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과 폭염 피해복구 등 단계별 대응에 들어간다.

노인들을 위한 무더위쉼터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총 3234곳에서 운영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폭염 특보 시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수방 대책으로 시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등 방재시설을 정비한다.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와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물막이판, 수증펌프 등 침수방지 시설을 확충해 피해를 예방한다.

풍수해로 인한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공공건물과 학교 등 965곳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구호용 텐트 1000등을 지원한다.

폭우를 대비해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출·퇴근시간대와 막차시간을 재난 단계별로 30분에서 1시간까지 연장·증회 운행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서울시 안전정보 사이트 ‘서울안전누리’, 서울안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고 속보와 날씨정보, 유사시 시민행동요령 등을 제공한다.

안전대책으로 시는 숙박시설과 재난취약시설을 점검한다. 이번 달 말까지 호텔 등 숙박시설 약 3000여 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를 방지한다.

도로합몰 등 파손 빈발구간을 조사해 노후·균열 등 포장 불량지역을 정비, 포트를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휴가철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한강공원의 인명사고 취약시설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수상안전교육을 진행한다.

보건 대책의 일환으로 시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비한 예·경보제를 실시한다. 오존경보제 시행기간에는 오존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오존 경보 발령·해제와 시민행동요령 홍보 등을 추진한다.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여름철 급성 감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방역요원이 병원과 학교 등에서 24시간 감시한다. 하수구 등을 중심으로 유충 구제활동을 벌인다.

/김현정 기자 hki1@

서울서 ‘내 집마련 꿈’, 9년 연봉 꼬박 모아야

서울시-국토부 주거실태조사
주거비 부담 서초구 1위

서울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자치구는 서초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8.8배로 9년 치 연봉을 모아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8일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배수(PIR)는 8.8배로 전국 5.6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에서 20.8배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18.3배, 용산구 13.1배 순이었다. 서초구에서는 21년 치 연봉을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다.

아울러 시내 거주하는 가구의 71.3%가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구입의 49.6%가 부담된다고 답한 반면, 임차가구의 83.3%가 부담된다고 응답해 점유 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시 임차가구의 월소득에서 월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율(RIR)은 12.7%였다. 동북권에서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월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42.9%로 전국 57.7%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도봉구(60.2%), 노원구(51.1%), 양천구(50.5%)에서 자가 점유 비율이 높았다. 노인가구의 63.2%, 청년가구의 19.1%가 자가 가구였다.

지난해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 비중은 서울이 47.9%로 전국 60.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월세가구의 비중은 청년가구, 1인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은 서울이 6.5년으로 전국 8.0년에 비해 짧았다. 자가구입은 평균 10년, 임차가구는 평균 4년동안 같은 주택에 거주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73.7%가 지난 2010년 이후 이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이사 횟수는 4.1회였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서울이 76.8%로 전국 82.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인가구(83.3%)는 청년가구(68.3%)에 비해 주택 보유 필요성을 높게 봤다.

/김현정 기자



오랜만에 파란 하늘 드러낸 서울 도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맑음’ 수준을 보인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 서 바라본 도심이 말끔하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초등학생 대상 ‘한양도성 어린이탐험대’ 운영

서울 종로구는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자연을 학습하는 ‘한양도성 어린이탐험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종로구 내 13개 국립·공립·사립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학생은 14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SH 향동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1610세대 공급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1610세대를 공급한다. SH공사는 8일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

공급되는 물량은 구로구 향동지구 3·8단지 822가구와 강일지구 등 27개 지구 잔여공가 788가구 등 총 1610가구이다.

신규 향동지구는 신혼부부 243세대, 주거약자에 100세대, 고령자·장애·한부모가족·비정규직·중소기업 재직자·노부모양자 등에게 255세대를 우선 공급

한다. 이외에 향동지구 개발 철거세입자에게 75세대, 일반 149세대를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공급물량은 향동지구의 경우 39㎡ 총 248세대, 49㎡ 206세대, 59㎡ 368세대며, 강일 등 잔여공가는 39㎡ 119세대, 49㎡ 208세대, 59㎡ 461세대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은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자산 2억4400만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2545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향동지구 3단지 조감도. /서울주택도시공사

모집 공고는 8일, 신청 접수는 15일부터 17일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9월 28일이며, 계약기간은 10월 12~16일까지다.

/김현정 기자

마포구 “여름방학 대학생 관공서 알바 찾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오는 17일까지 민원안내와 행정보조 역할을 수행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대학원생 제외)이다. 모집 인원은 총

35명이다. 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다자녀가정(3자녀이상)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11명을 우선 선발한다.

/김현정 기자